

특 집

오픈액세스 저널과 도서관



글 | 강 은 영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myflora71@hanmail.net

오픈액세스 저널의 의미

최근 웹의 발달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오픈액세스라는 개념은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픈액세스는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학술정보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각종 연구 성과물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운동이다. 피터 슈버(Peter Suber)는 부다페스트선언(Budapest선언)과 베데스다선언(Bethesda선언), 베를린선언(Berlin선언)을 통합한 'BBB정의'를 통해 오픈액세스를 '비용장애(Price barrier)'와 '허락장애(Permission barrier)'를 제거한 온라인 상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터 슈버의 정의에 따르면, 법적·경제적·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 성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오픈액세스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부다페스트 OA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¹⁾에서는 오픈액세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픈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과 기관 혹은 주제별 레포지토리로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하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오픈액세스 저널은 구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특별한 허락 절차 없이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논문을 읽고, 복제하고, 전송하고,

1)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

출력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지라는 개념으로, 현재 오픈엑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의에서 살펴 볼 수 있듯, 오픈엑세스 저널은 이용자에게는 무료의 개념이지만 저자나 소속기관 등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오픈엑세스 저널은 그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출판 비용을 누가 충당하는가의 기준에서, 저자로부터 받은 논문처리비(article-processing charge, APC)로 출판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는 저자 비용형(Author Fee) 저널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오픈엑세스 저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오픈엑세스 저널이 기존 학술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논문에 대한 저작권이 학회나 출판사로 이양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웹상에서 자유롭게 오픈할 수 없으며, 구독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와 구독료 지불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논문 이용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픈엑세스 환경에서 논문을 출판하게 되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됨과 더불어 웹 상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유통의 속도가 빨라 연구 성과의 확산이 극대화된다. 오픈엑세스 자원이 가지는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이라는 특징은 연구 성과물의 이용 범위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는 학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픈엑세스 저널의 현황

이러한 이유로 학술논문을 오픈엑세스에 기반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흐름이며, 이는 현재 출판되는 오픈엑세스 저널의 양적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오픈엑세스 저널의 현황과 확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DOAJ 현황', 'JCR에 수록된 오픈엑세스 저널의 비중', '구독기반 저널에서 오픈엑세스 저널로의 전환 현황', '대규모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저널 출판 현황' 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오픈엑세스 저널 디렉토리(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²⁾에는 2011년 4월 현재 모두

2)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Open Society Institute, OSI)와 SPARC의 자금지원을 받아 룬드대학교가 운영하는 오픈엑세스 저널 디렉토리

6,427종의 오픈액세스 저널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2,822종의 저널에 대해 기사 단위 검색이 가능하며, 총 537,315건의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연평균 780여 종이 증가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추가된 저널 종수만 해도 1,488종으로 전년(2009년 말) 대비 3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스팍(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SPARC) 프로젝트³⁾가 시작될 당시의 수록저널이 300여 종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약 8년 만에 21배 이상의 성장을 한 것이다.

이를 국가별로 보았을 때 미국이 1,222종으로 저널의 종수가 가장 많으며, 한국은 현재 총 31종이 등록되어 36위에 랭킹되어 있다. 특히, DOAJ에 수록된 국내 발간 오픈액세스 저널 중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ETRI Journal』,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BMB Reports』,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Radiology』 등은 PMC, JCR(SCIE 포함), SCOPOUS에 등재되어 있어 인지도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저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의를 막론하고 오픈액세스 저널을 출판하는 사례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오픈액세스 학술출판사협회(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⁴⁾에 등록된 오픈액세스 연구 성과물 출판기관이 56개 기관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전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오픈액세스 레포지토리 디렉토리(The 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OpenDOAR)⁵⁾에 등록되어 있는 레포지토리의 수만 해도 2011년 현재 1,907개이며, 오픈액세스 레포지토리 레지스트리(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ROAR)⁶⁾에도 2,198개의 레포지토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레포지토리를 통해 구축되어 제공되는 오픈액세스 저널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살펴 볼 것은 저널인용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 JCR)에 수록된 오픈액세스 저널 비중의 변화이다. JCR에 등재된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비율을 2003년과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 본 엘레나 질리아(Elena Giglia)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Science edition)의 경우 1.47%(5,907종)에서 5.38%(3,801종)로 사회과학분야(Social science edition)의 경우 1.05%(1,714종)에서 1.52%(1,980종)로 5년

3)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역기능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설립된 기구

4) 문대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출판사협회

5) 노팅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레포지토리의 디렉토리 서비스

6)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오픈액세스 레포지토리 등록소

동안 각각 3.91%와 0.4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오픈액세스 저널의 양적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기존 구독기반 저널을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피터 슈버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구독기반 방식에서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한 저널이 48종에 달했다. 저널인용 보고서 영향력 지수(JCR Impact Factor)가 해당 주제 분야에서 중상위를 차지하는 학술지 『Genetics Selection and Evolution』이나 『Journal of Biomedical Science』가 오픈액세스 저널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함께 오픈 액세스로 전환된 학술지의 경우 논문투고율과 영향력 지수가 높아진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창간된 지 50년이 넘는 학술지 『Acta Veterinaria Scandinavica』는 바이옴메드 센트럴(BioMed Central)에서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후 논문 투고율이 두 배로 늘었으며, 영향력 지수는 2005년 0.408이던 것이 2009년 1.000으로 상승하여 현재 '수의학' 분야 학술지 134종 중 54위에 랭킹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출판사에서 오픈액세스 저널을 창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과학·의학 분야에서 140년 넘게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학술지 『Nature』를 발간하고 있는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Nature Publishing Group)의 경우, 2010년 4월 오픈액세스 저널 『Nature Communications』를 시작으로 올 6월 『Scientific Reports』를 오픈액세스 형태로 발간하여 펌메드 센트럴(PubMed Central)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역시 연구자들을 위해 올 가을에 『Physical Review X』를 창간할 예정이며, 와일리(Wiley) 또한 생명과학과 생의학분야의 피어리뷰 오픈액세스 저널을 출판하는 프로그램 와일리 오픈액세스(Wiley Open Access)를 시작하여 오픈액세스 저널 3종 『Microbiology Open』, 『Ecology and Evolution』, 『Brain and Behavior』를 연내에 발간할 예정이다. 세이지 출판(SAGE Publication) 역시 '세이지 초이스(SAGE Choice)' 라는 오픈액세스 프로그램을 생물의학 분야와 함께 과학기술·의학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SAGE Open』이라는 인문과학·사회과학·행동과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저널을 오픈액세스 형태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으로 현재까지 오픈액세스 저널의 확산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향후 학술정보유통에 있어 오픈액세스 저널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서관 정보자원으로서 오픈엑세스 저널

웹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형태가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그 확산의 범주가 넓어지는 만큼 도서관의 정보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고려사항들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서관이라면 최근 출판과 이용의 측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오픈엑세스 저널의 수집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즉, 도서관이 소유하거나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자원 이외 웹 기반 정보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고려했을 때, 도서관이 관리해야 할 정보자원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픈엑세스 저널은 단연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오픈엑세스 저널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서비스해야 할 정보자원 범주의 확장'이라는 기회이자 과제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학술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도서관에서 오픈엑세스 저널이 가지는 의미는 더 클 수 있다.

1665년 『Philosophical Transaction』과 『Journal des Savante』에서 시작된 학술지는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20,000~25,000종 가량의 심사학술지(peer reviewed journal)가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공하면서 학술정보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술지는 연구 중심 도서관에서 전체 예산 대비 구독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학술지 시장에서는 상업출판사가 연구 성과물의 저작권을 소유하면서 학술지 가격을 독과점 형태로 매년 인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비용장애(price barrier)와 허락장애(permission barrier)로 인해 도서관이 구독할 수 있는 저널종수는 줄어들고 이용환경은 제한되고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상황은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이용·확산을 기본 업무로 하여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서관의 기본 취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술 연구의 성과물은 널리 확산되어 이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오픈엑세스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픈엑세스 패러다임은 학술지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위기에 처한 도서관에게 또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구독기반 저널과 함께 오픈엑세스 저널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오픈엑세스 저널의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고 오픈엑세스 저널 출판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픈엑세스 저널보다는 구독기반 저널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웹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오픈엑세스 저널 아카이브, 레포지토리 그리고 관련 검색엔진을 통해 오픈엑세스 저널을 입수하여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출판되어 제공되는 양에 비해 이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오픈엑세스 저널이 저널에 따라 질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며, 둘째는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상용 DB에 접근 가능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접근의 편의성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학술지를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오픈엑세스 저널이 무료와 개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에는 기존의 구독 기반 저널과 마찬가지로 오픈엑세스 저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정보자원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오픈엑세스 저널의 평가를 통한 수집과 제공은 이용자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오픈엑세스 저널을 골라 도서관이라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시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도서관에게는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범위가 확장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이용자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가 회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서개발 담당 사서는 오픈엑세스 타이틀을 선정하여 온라인 열람목록(OPAC)이나 주제 가이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오픈엑세스 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오픈엑세스의 개념이 확산되고 오픈엑세스 저널의 양이 급증하면서 오픈엑세스 저널 아카이브나 레포지토리 자체를 이용자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도서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질(quality)이 입증된 오픈엑세스 저널과 논문을 선별하여 기존의 구독기반 저널과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픈엑세스 저널을 도서관 정보자원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과 선정을 위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픈엑세스 저널의 가치와 평가

최근 웹의 발달에 따라 사이러스(Scirus)⁷⁾, 사이트베이스 서치(Citebase search)⁸⁾, OAIster⁹⁾ 등을 통해 오픈엑세스 자원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DOAJ에 수록된 오픈엑세스 저널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와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를 통해서도 저널 및 논문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듯 오픈엑세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는 확대되고 있는 편이지만 DOAJ 이외의 아카이브나 레포지토리를 통해 제공되는 오픈엑세스 저널의 양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검색의 한계는 남아 있다. 더욱이 DOAJ와 같은 유명한 사이트도 컬렉션의 모든 자원들이 실제 오픈엑세스가 아닌 경우와 컬렉션의 일부 자원들이 저널이 아니라 단순한 웹사이트인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픈엑세스 저널이 보편화되고 그에 대한 인지도도 향상되고 있지만, 오픈엑세스 저널을 제공하는 각 기관별 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에서 일부 검색될 뿐 외국의 사례처럼 주제화된 레포지토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오픈엑세스 저널을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독 기반 저널과 함께 도서관의 정보자원으로 인식하여 도서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오픈엑세스 저널을 체계적으로 평가·선정하여 도서관 정보자원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RL이 회원도서관 123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도서관의 84%가 외부에 존재하는 오픈엑세스 자원에 대한 특별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도서관은 향후 그들의 장서개발정책서에 오픈엑세스 자원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특정 DB에서 제공하는 모든 오픈엑세스 자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DOAJ 자체를 링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오픈엑세스 타이틀이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자료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것을 도서관 장서에 추가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서들의 의견은 오픈엑세스 자원은 비용모델과 상관없이 이용자 요구의 적합성에 기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서개발 담당 사서는 오픈엑세스 타이틀을 선정하여 OPAC이나 주제가이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오픈엑세스

7) 엘스비어(Elsevier)에서 운영하는 웹 서치 엔진으로 엘스비어에서 출판한 저널 외에도 다양한 학술출판물과 우수한 외국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중요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 결과 제공

8) 오픈엑세스 자원검색 및 인용횟수에 따른 논문 순위 제공 엔진

9) 오픈 아카이브(archive)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의 포털 사이트로 미시간대학교가 운영, 일반 검색엔진이 잡아 내지 못하는 특정 기관이나 대학의 레포지토리 내의 자원 등 심층 웹(deep web)의 정보원을 검색

스 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압축되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오픈액세스 저널 선정 기준을 만들어 기존의 장서개발정책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오픈액세스 저널을 선정하여 도서관자원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픈액세스 저널 아카이브와 레포지토리 자체를 링크시켜 수록대상 자원의 특성에 대한 초록만을 제시하여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오픈액세스 저널이 이용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치와 질적 가치가 있는 고품질의 자원이 타이틀 단위로 선별되어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이 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오픈액세스 저널이 구독기반의 저널만큼 유용함을 인정하여 그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원들을 더 이상 부차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즉, 질적으로 통제된 조직적 차원의 자원 수집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오픈액세스 저널도 구독기반 저널과 동일하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픈액세스 저널을 평가하여 기존의 구독기반 저널과 함께 도서관자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현재 오픈액세스 저널의 평가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관련 기관과 연구자 차원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만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DOAJ, SciELO,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과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최대의 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토리인 DOAJ는 오픈액세스 저널의 선정기준 제시를 통해 저널의 질 관리(quality control)를 하고 있다. 우선, 저널의 수준 유지를 위해 반드시 심사제도(peer-review)가 시행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편집진의 수준유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저널은 반드시 기초연구를 알리거나 연구 성과를 수록하는 학술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기적·지속적으로 간행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적어도 1년에 1호 이상은 발간되어 연속적으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더불어 내용적으로 독립적인 논문과 기사를 수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개발도상국의 저널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SciELO는 홈페이지에서 저널 선정과정에서의 평가 기준을 '과학적 내용', '심사제', '편집위원회', '간기', '출간 시기의 정확성', '생애(lifetime)', '출판의 적시성', '타이틀, 초록, 키워드 영어로 작성', '표준화', '저자약력' 등으로 비교

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차원에서 제시되는 평가 기준의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을 들 수가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장서개발정책 서문에 오픈액세스 저널 중 심사를 받은(peer-reviewed) 저널은 우선 고려대상으로 간주함을 밝히고 있다. 오픈액세스 자원 역시 구독기반 자원에 적용되는 동일한 품질 지표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하면서 ‘연구와 교육에서 적합성’, ‘생산기관의 인지도와 명성’, ‘안정성과 신뢰성’, ‘인터페이스’, ‘자원열람의 용이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나 단체 차원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 이외에 연구자 차원에서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평가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논의와 동시에 논란이 된 바가 있지만 저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영향력 지수인 바, 주로 이 ‘영향력’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평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아네타 오스트로스카(Aneta Ostrowska)는 영향력지수가 저널의 명성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저널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님을 주장하며, 오픈액세스 저널의 평가에 웹 영향력지수(Web Impact Factor, WIF)와 이용 영향력지수(Usage Impact Factor, UIF) 등의 다양한 지표를 함께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피터 잉베르센(Peter Ingwersen)에 의해 개발된 웹 영향력지수는 특정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는 ‘온라인 인용’으로 볼 수 있다는 논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지수이며, 팀 브로디(Tim Brody)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요한 볼렌(Johan Bollen)과 허버트 반 쏴펠(Herbert Van de Sompel)이 제안한 이용 영향력지수는 기존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에서 ‘피인용(cited)’의 개념을 ‘이용(use)’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계산되는 방법이다.

피터 슈버 역시 영향력 지수 등 널리 사용되는 지표가 오픈액세스 저널의 중요도를 측정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며, 이러한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겐팩터(Eigenfactor)나 이용 영향력지수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 두 연구자가 주로 ‘인용’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저널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반면, 데이비드 로렌스(David Lawrence)는 오픈액세스 저널의 평가요소로 지속발간 여부(continuity/survival), 편집위원회의 구성, 저널수준관리 프로세스, 편집지원체제, 유동성(flexibility), 검색포털에서의 수용성(Google visibility)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체계적으로 정보자원관리를 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자원으로서의 오픈액세스 저널의 신뢰성에 주안점을 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오픈엑세스 저널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자원의 질(quality) 평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독기반 저널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독기반 저널의 경우 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선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구독기반 저널이든 오픈엑세스 저널이든 도서관의 정보자원으로 취급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픈엑세스 저널 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통제된 오픈엑세스 저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 정보자원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대상 자원의 범위가 확산되고 ‘학술지 위기’라는 상황에 대처가능하게 되어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엑세스 저널의 경우, 오픈엑세스가 가지는 개념적인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구독기반 저널과는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구독기반 저널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에서는 오픈엑세스 저널이 가지는 특징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이들 자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픈엑세스 자원의 유용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자원들을 도서관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과 사서는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오픈엑세스 활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